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4/11/25~2024/12/01]

2024.12.02

[로봇]

- 이번 주의 이슈: 늘어나는 로봇 밀도
- 테슬라 옵티머스 손 업데이트, DoF(자유도)는 기존 11개에서 22개로 늘어남
- 뉴로메카 100억 규모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포스코홀딩스 CVC가 투자 결정. 양사 협력 강화
- 유니버설 로봇, 현지화 전략 강화. 한국 서비스 센터 개소, 중국 현지 양산 추진

[방산]

- 이번 주의 이슈: 방산주 급락, 반등할까?
- L-SAM 개발 종료, 내년 양산. L-SAM II 사업자는 12월 선정. 한화 vs LIG
- 한화와 HD현대 해양 방산 두고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중
- 사우디 GCAP 참여 가능성 높아짐. 반대하던 일본에서도 참여 가능성 높게 보도되는 중

[항공]

- 이번 주의 이슈: 다가온 합병
-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결합 EC 승인. 12월 주식 인수 예정
- 국토부 신규 운수권 배분. 체코 직항 증편, 북유럽 등 노선 다변화
-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완료. 수용 능력 기존 7,700만명에서 1억 600만명으로 증가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Keyword

늘어나는 로봇 밀도

IFR에서 23년 로봇 밀도를 발표. 한국이 1등인 점은 불변했으나, 증가세는 정체됨,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 중. 향후 미국 성장도 기대. 한국 로봇 기업들이 내수가 아닌 해외를 집중해야하는 이유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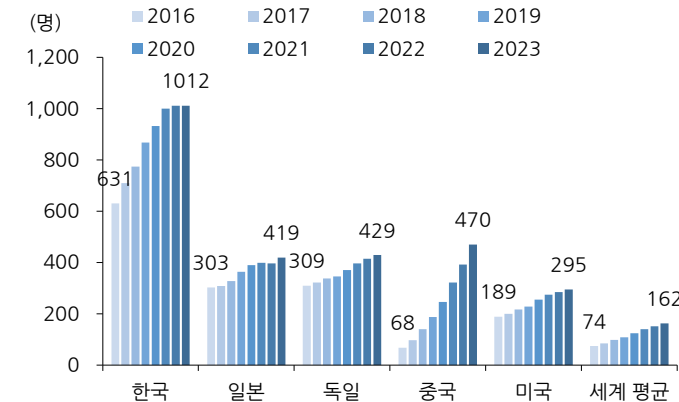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4)

[늘어나는 로봇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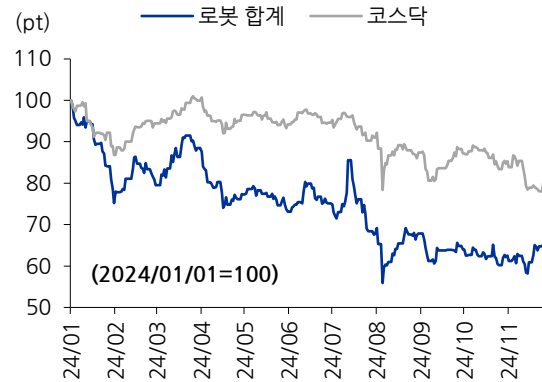
■ 세계로봇연맹(IFR)에서 세계 로봇 밀도 최신 데이터를 발표. 세계 로봇 밀도 평균치는 2016년 만명당 74대에서 162대로 2배 이상 증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한국은 여전히 1등을 지키고 있지만, 다소 정체 국면. 국내 로봇 기업들이 내수 시장보다 성장하는 해외 시장을 바라봐야하는 이유이기도 함. 향후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은 미국. 트럼프 이후 리쇼어링 정책 한층 강화되고 미국 내 제조 기반 재활성화되며 자동화 수요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Key Chart: 국내외 로봇 상장사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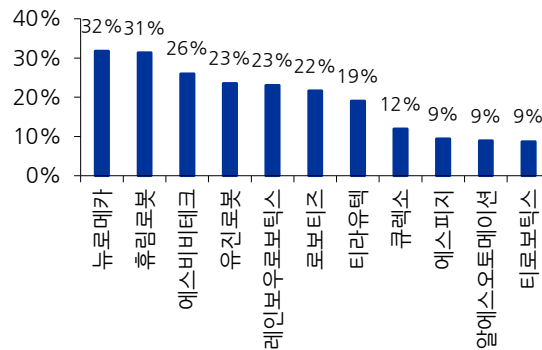


자료: 엔비디아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11/25~12/01)

[산업용 로봇]

- 포스코그룹, 로봇기업 뉴로메카에 100억원 투자
- 한국 로봇 밀도 만명당 1,012대로 세계 1위 유지

[서비스 로봇]

- 현대차그룹,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판매 돌입
- 두산로보틱스, 수술로봇 중앙대병원 실증
- BBQ, 가맹점에 치킨 튀김 로봇 도입

[기타(정책/부품/SW)]

- 클로봇, 국토안전관리원과 교량/터널점검 협업
- 뉴빌리티, 서비스로봇 위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중
- 유진그룹 TXR로보틱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협력
- 유진로봇, 자율이동 조작로봇 공동개발
- KETI, AI 기반 생활지원 모바일 로봇 개발

[Global]

- 테슬라 옵티머스 새로운 손 장착한 동작 영상 공개
- LLM 기반 로봇 AI 해킹/탈옥 문제 제기
- 뉴럴링크, BCI칩으로 로봇팔 작동 임상 착수
- 유니버설로봇, 내년 한국에 UR 서비스 및 수리센터 오픈
- 유니버설로봇, 중국 현지 생산 추진. 현지화 전략 강화
- 피규어 AI, 휴머노이드 BMW 공장 작업 영상 공개
- 화낙 아메리카, 고중량 페이로드 산업용 로봇 출시
- 美 픽클 로봇, 시리즈 B 라운드서 700억원 유치
- 베트남 빈그룹, 로봇 자회사 '빈로보틱스' 설립
- 中 난징시, 26년까지 중국 최고 로봇 도시 목표
- 中 감속기 기업 환동로봇관절, 상하이 스타마켓 상장



안녕하세요

방산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방산주 급락, 반등할까?

지정학적 불안감 해소 등으로 방산주 급락. 여전히 세계는 불안하고, 국내 방산 기업들의 해외 수출 확대 흐름은 지속되며, 안정적인 실적 흐름 속 주가 흐름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함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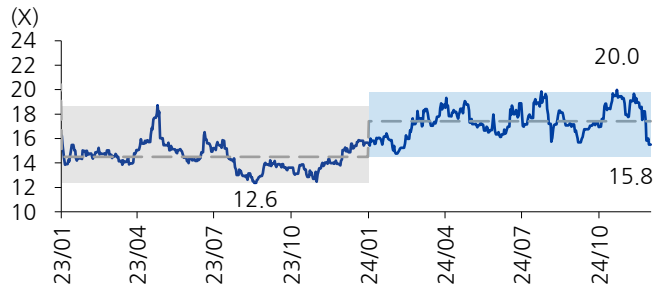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2)

[방산주 급락, 반등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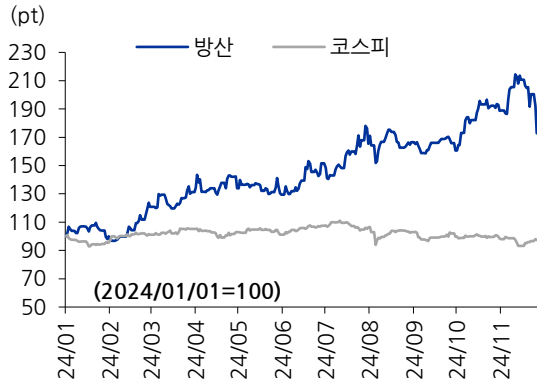
■ 지난 주에만 방산 시총은 약 16% 감소. 주된 하락 요인은 (1) 유럽 및 중동 전쟁 휴전/중전 리스크 부각 (2) 일론 머스크 방산 관련 지적 (3) 루마니아 대선 친러 성향 인물 부상 등 영향. 방산 기업들의 평균 12MF PER은 2023년 평균 수준인 15.8배까지 큰 폭 하락.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우려 확대. 방산이 리레이팅 되었던 요인은 (1) 불안한 지정학 환경 (2) 지속되는 해외 수주 (3) 이익 성장. 당사는 휴전/중식에 지정학 불안감은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수출 물량 증가로 실적 성장 흐름도 지속될 것이며, 여전히 동유럽/중동/아태 지역에서의 견조한 수주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음. 달라진 상황은 없다는 판단. 리스크는 트럼프의 BA 정책.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요하며, 주요 국가들의 합리적 선택이 아닌 정치적 선택 우선시 할 경우 미국과의 경쟁 불가피. 현지 양산 및 공동 개발 등 Next Phase 준비 필요

Key Chart: 방산 12MF PE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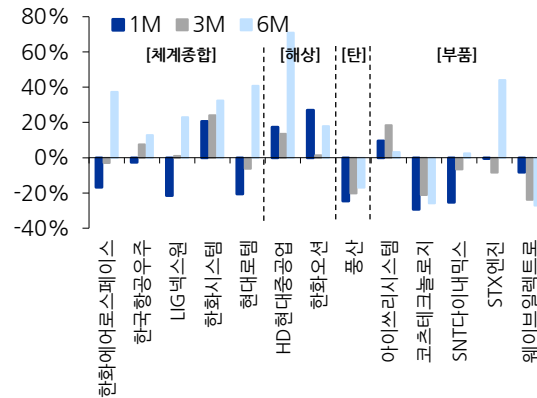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11/25~12/01)

[수주/계약]

- 우크라이나 천궁 구매 타진, 한국 정부는 난색
- LIG넥스원, 페루 해군과 대규모 방산 계약 체결
- K2 폴란드 2차 계약 지연. 현직선 비싸다 여론도
- 고고도 요격체계 L-SAM 개발 완료. 내년 양산 착수
- KDDX 사업자 선정 내년으로. 후속함 복수 계약 검토
- 한화에어로 KF-21 보조엔진 등 4731억 규모 계약
- 한-말레이 정상회담. 방산 등 협력 강화
- 콜롬비아 노후 전투기 교체 수요. 한국산 도입 희망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美 법인장, 미국 방산협회 이사회 멤버 합류
- LIG넥스원, 구미에 국내 최대 수조2시험장 준공
- KF-21 1천 소티 비행 달성. 2천 소티 계획 중 절반
- KAI, 英 방산 법국과 유럽시장 진출 확대 위한 업무협약
- 한화오션, 英방산 법국과 잠수함 수출 전략 파트너십
- 한화오션과 HD현대, 양측 고소 취하. 화해 기대감

[기타]

- 휴전/정전과 머스크 미 국방예산 비판에 방산주 급락
- 방산업체 수출용 방산물자 보유 법 개정안 발의
- 야,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법' 국방위 상정 않기로

[글로벌]

- 베트남 美 무역흑자 해소 위해 미국 무기 구매 확대 예상
- 美 록히드마틴, F-35 지원 8.7억달러 조달 계약 체결
- 日英伊 6세대 전투기 GCAP 사우디 참여 가닥
-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불참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다가온 합병

유럽 경쟁 당국의 대한항공 - 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으로 양사 통합이 임박. 시너지 반감 효과, 통합 비용에 대한 우려는 과도.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 속 성장 여건 마련된 점 긍정적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2)

[다가온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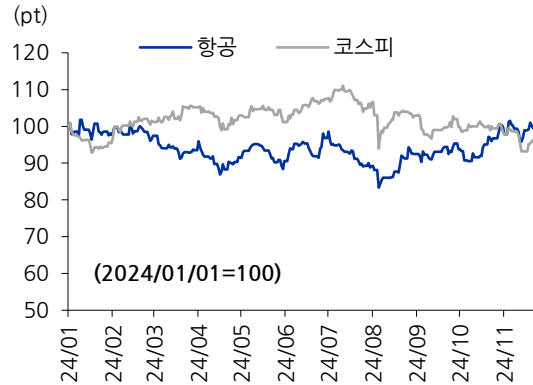
■ 11월 28일 유럽 경쟁당국(EC)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 2월 조건부 승인 이후 내걸었던 유럽 여객 노선 경쟁 제한 완화 및 화물기 분리 매각 조건 충족에 따름. 남은 것은 미국 DOJ 승인이나, 별도 이의 제기 없을 경우, 대한항공은 12월 2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주식 63.9%까지 확보할 계획. 4년 만에 통합이 코 앞으로 다가옴. 통합 항공사 아래 LCC 3사 통합도 예상됨. 시장에서는 여전히 운수권/슬롯 반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반감을 우려하나, 당사 추정에 따르면 통합 항공사 보유 슬롯의 10% 수준으로 추정. 이미 대한항공은 신규 노선 개척에 나서고 있어, 경쟁력 훼손 우려는 과도.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 확보에 따른 성장 흐름에 주목. 참고로 22년 ESG 보고서에서 통합 비용은 6천억원, 영업이익 개선효과는 연 3~4천억 수준으로 추정됨

Key Chart: 다가온 KE-OZ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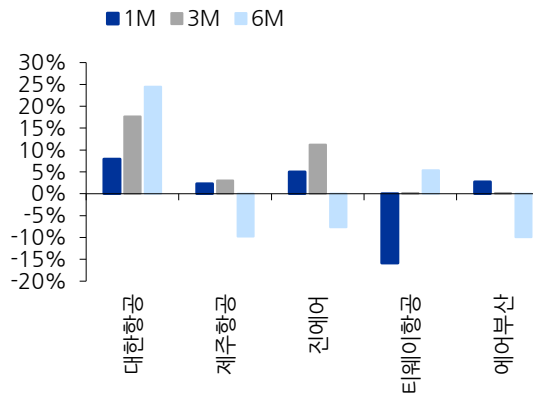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11/25~12/01)

[여객]

- 국토부, 체코 직항 등 국제선 확대. 15개 노선 항공사 배분
- 에어프레미아, 뉴욕 노선 매일 운항 체제로 전환

[화물]

- 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 확정
- 일본발 미국 항공화물 장기운임 상반기 대비 50% 상승

[기타]

- 유럽 경쟁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 승인
- 인천공항 4단계 확장시설 오픈. 12월 3일 정식 운영
- 대한항공, 롤스로이스 엔진 정비 라이선스 확보
- 대설에 이틀 째 공항 항공편 결항-지연 이어져
- 티웨이 여객기, 日 오사카공항서 대기선 넘어 정지
- 인천공항 국제선 항공사, 출발 시간 준수율 하락
- 에어부산, 정시성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 최고 등급
- 아시아나 마일리지, 스카이패스에 통합운영 예정
- 대한항공 LCC 3사 통합,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필수

[Global]

- 에미레이트항공, 보잉에 강한 불만 표출
- 홍콩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수송 능력 연 1.2억명으로
- 동남아 항공사 인도 노선 확충. 인도인 수요 증가
- 일본산 티타늄 수요 강세. 러시아산 회피 수요로 수혜